



남원 금동 참사랑 유치원 원아들, 자원재활용 참여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참사랑 유치원 원아들이 남원시 자원재활용 교환사업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사랑 유치원 원아들과 교사들은 일상에서 마신 300ml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정성껏 모은 3,000개(약 97kg)를 전달, 우유팩 30개당 화장지 1개 교환 기준에 따라 화장지 100개로 교환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분리배출을 실천하며 자원 순환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교환받은 화장지에 남원시가를 3대 축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및 부착하여 환경보호와 지역축제 홍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를 거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도동장 · 직원들 시정 홍보 펼쳐

남원시가 지역 3대 축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채철 도동장장과 직원들이 지난 9월 10일, 임실군 3개면(오수면·성수면·지서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시의 주요 시정과 정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동동이 지역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남원의 대표 축제와 주요 정책을 직접 소개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린 일정이었다.

특히, 오수면 전통시장에서 △남원누리시민 가임 홍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산야행 등 가을 3대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성수면과 지서면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비롯한 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시니어클럽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 추진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지난 12일 김제 시니어클럽 공동교육관 1층에서 김제시니어클럽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 추진 등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교육은 김제시니어클럽에서 치안지킴이 활동 및 회원 100여명 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교통안전 수칙, 마지막으로 김제경찰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인식체계 소개,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도보시 무단횡단 금지, 이륜차 안전수칙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일자리 박람회서 청년 취업컨설팅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는 지난 11일 '2025년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농협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컨설팅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인사담당자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역농협 인사담당자가 멘토로 나서 △농협 채용 프로세스 안내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전략 △현장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농협은 취업컨설팅과 더불어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홍보와 쌀 소비촉진 캠페인도 같이 진행해 우리 농산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를 홍보하였다.

김유현 지부장은 "농협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며 더 나아가 김제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김제시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컨설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남원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2일 사람의 광장에서 '제26회 남원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8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시민과 함께 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다하기, 행복나누기, 열정꿈하기=복지남원'의 주제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중앙무대와 박람회장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복지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행사 당일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요원과 응급의료 지원반을 배치하였으며, 각 부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 모두가 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연금공단 · 기획재정부 · 임실군, 상생 자매결연 체결

국민연금공단과 기획재정부, 임실군이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임실 치즈페스티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임실군이 지역 상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지역 특산품 구매와 관광 활성화 등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민 임실군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명절 선물과 기념품 구매 시 지역 특산품 적극 활용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지식 교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상생 자매결연이 관광



과 특산품 구매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방 살리기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님과 김태현 이사장님이 함께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지역상생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너무 뜻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임실=진흥영 기자

전북은행, 무주청소년수련관에 'JB희망의 공부방' 열어

전북은행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배움의 공간을 선물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2일 무주군 무주청소년수련관에 'JB희망의 공부방 제207호'를 열고 청소년들에게 새 책상과 의자를 지원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오랜 세월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문화·진로 탐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개관 18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불거져 안전사고 우려와 학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전북은행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수련관은 낡고 부족한 책상을 교체하고, 인쇄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한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특히 전북은행은 '인전'과 '배려'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습에 방해 요소가 되는 불편함을 없애고 다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열린 오픈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김주형 무주청소년수련관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국종만 무주지점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부방을 둘러보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오상근 기자



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열린 오픈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김주형 무주청소년수련관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국종만 무주지점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부방을 둘러보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난 1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세미나실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제3차 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14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기획, 올해 총 3차에 걸쳐 운영되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3차 교육의 주제는 '성인지 예·결산 이해 및 활용'으로 컨설턴트들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직접 작성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컨설팅 실무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유은경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들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전북자경위, 평화동자물방범대와 합동순찰 전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지난 11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 일대에서 평화동자물방범대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복 도의원, 전주안경경찰서 관계자, 평화동자물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상가 밀집지역과 원룸 골목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진행했다.

순찰에 앞서 평화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방범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연주 위원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자물방범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수협, 한여름 부안 부녀회와 반찬 나눔 행사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과 부안수협 한여름 부안분회 부녀회(회장 임이순)가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 반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성어업인(부녀회) 회원 10여명과 부안수협 임직원 등 5명이 참여해 반찬(김치, 장조림)을 부안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임이순회장은 "부안수협과 관내 어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매년 일한 행사를 진행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복 조합장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기관장협의회, 발전시설 탐방 · 발전방안 모색

정읍시기관장협의회(회장 박입)가 지난 11일, 칠보 수력발전소 및 무성사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읍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입 정읍시의장, 김순기 농업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날 정우회는 정읍시 주요 시설 및 문화유적지 탐방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정읍시 주요현안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노암동, 모바일 행복이음 통해 소통행정 강화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 도입을 통해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강화하며 주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담당 공무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주민의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상담과 신청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노암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한 달 평균 100가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를 세심히 살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취약 어르신 반찬 지원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발굴한 관내 저소득 취약 어르신 2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대상은 최근 심장질환으로 두 차례 병원에 병입한 입원한 고령의 남성과 아내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 어르신은 폐기종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운봉읍에서는 반찬과 식료품을 2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고, 반찬은 지역 식당과 협력해 매주 한 차례씩 전달될 예정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배달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